

New Leader 12.

섭섭함! 모든 상황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감정

[열왕기상 20:43]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21:4-7] 4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5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6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 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오." 7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유

아합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지도자이다. 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은 아합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왕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악한 왕이었다. 결국, 하나님을 뜻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혼'의 영역, 즉 생각에서 일어난다. 법칙이 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 기능

- * 영 -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배, 교제, 계시의 영역이 이에 속한다. (데릭 프린스)
- * 혼 -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 결정의 기능이다.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혼의 영역에서 반역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무슨 말인가? 혼의 사람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된다.

(2) 거듭난 존재 안의 변화

- * 영 - 예배, 교제, 계시가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 * 혼 -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정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게 된다.

2. 섭섭함의 정체

오늘 아합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씀은 반복해서 아합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한다. 상했다는 것은 마음에서 크래치가 난 상태이다. 말씀을 보면 '분노-angry'의 상태로 표현된다. 분노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왕기상 20:43]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43 Sullen and angry, the king of Israel went to his palace in Samaria.

[열왕기상 21:4]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4 So Ahab went home, sullen and angry because Naboth the Jezreelite had said, "I will not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He lay on his bed sulking and refused to eat.

* **아이들의 분노** - 아이들의 마음은 감출 수 없다. 만약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상한 아이이다.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언제 분노하는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한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한다. 분노의 이유는 '욕구불만'이다. 무슨 말인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를 말한다. 몸은 어른이 되어도 정신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분노'조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아이처럼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아합의 정체성을 보아야 한다. 아합은 '왕'이다. 성숙함의 완성된 존재가 왕이다. 왕의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왕은 나라이며, 왕 자체가 백성이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력'이다. '통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지도자이다.

* **섭섭함** -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은 거절감으로 인한, 욕구 불만의 미성숙 상태가 '섭섭함'이다. 섭섭함의 역기능은 '왜곡'이다. 섭섭한 상태가 되면 마음에서 '왜곡'이 일어난다. 왜곡이 무서운 것이다. 왜곡은 정상의 길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다.

(1) 섭섭함은 먼저 자기 자신을 왜곡한다.

섭섭함을 포함한 역기능적인 감정은 먼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왜곡을 일으킨다.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결정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왜곡된 감정과 생각의 감옥 안에 자아가 묶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2) 이웃과의 관계 왜곡

자기 자신에게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왜곡이 일어난다. 아합 왕을 보라. 이세벨에게 어린 아이처럼 의존적인 존재로 관계한다.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역기능적으로 통제한다. 모든 상황 안에 갈등의 불씨로 지피기 시작한다. 결국 갈등의 불씨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큰 화재로 변한다.

(3)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으로 변진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담 안에서 왜곡시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라고 말한다. 가인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는 반역적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탕자의 형의 문제도 결국, 아버지의 뜻을 왜곡시켜 알고 있는 것이었다)

마음의 상함과 섭섭함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의 거짓, 사탄의 왜곡이 지금까지 견고한 진으로 죄인 된 사람의 생각 속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라는 강력한 질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섭섭함이다.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상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4) 이세벨

[열왕기상 21:7]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욕구 불만의 아합의 마음에 이세벨이 다가온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한다. 더 깊은 왜곡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세벨의 계락을 통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아합은 남의 것을 빼앗는 동네 양아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탄의 해결은 언제나 이렇다. 내 욕구가 해결되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영혼을 가장 철저히 파괴하는 일들이다.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음성 앞으로 갈 것인가?

3.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섭섭함이 있었을까?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십자가이다. 예수님은 받는 분이 아니다. 주는 분이다. 섬기는 분이다. 말석에 앉는 분이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는다.

*** 주는 사랑** -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로 인한 엄청난 왜곡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말이 아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의 실체를 조건 없이 보여주신다. 내 안의 욕구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이다. 첫째 아들의 섭섭함에 대한 아버지의 해결은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려 준다. 아들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 욕구를 해결해 주는 욕구 해결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 관계도 없는 욕구 해결의 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같이 섭섭함으로 왜곡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신다.

이세벨이 만약 좋은 부인이었다면, "왕이 남의 포도원 밭 하나를 가질 수 없어 상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포도원 밭을 너무 잘 경작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욕구 해결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다. 왕의 전 삶은 백성의 행복을 위한 헌신이었다. 섬기셨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섭섭함의 모든 감정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라.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라. 내 마음의 섭섭함의 그늘 안에 빛을 비추라. 모든 왜곡된 섭섭함을 거절하라. 더 섬기는 존재로, 더 사랑하는 존재로 서라. 뉴리더의 모습으로 서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내 마음에서 찬양하라. 내 마음의 진정한 왕 앞에 항상 서라. 그리고 오늘도 선포하라.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